SECTOR
UPDATE

2025. 7. 3

EV/모빌리티팀

장정훈 Senior Analyst
jhooni.chang@samsung.com

조현렬 Senior Analyst
hyunryul.cho@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NEUTRAL)

(2차전지) 7월 월보 – 유럽의 선전, 미국의 부진

- 5월 EV 판매, YoY +31%: 유럽 +38%로 베스트, 미국은 -11%로 워스트
- 9월말로 앞당겨진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IRA 수정법안 상원 통과
- 다시 펀더멘털을 따지게 될 7월, 어닝시즌 감안한 차분한 투자전략 필요.

EV Battery Monthly Tracker (5월 판매 동향)

5월 글로벌 EV 판매, 전년비 31% 증가한 178만 대: EV Volumes의 글로벌 EV 판매 집계에 따르면, 5월 글로벌 EV 판매량은 178만 대로 전년비 31% 증가함.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35만 대가 팔리며 전년비 38%의 성장률로 올해 들어 YoY 성장률 최고를 기록함. 중국은 전년비 34% 늘어난 114만 대를 기록해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반면, 미국은 13만 대로 전년비 11% 하락하며 판매 부진폭이 전월(-2% YoY) 대비 심화.

5월 EV 배터리 장착량* 전년비 27% 증가: 5월 EV 배터리 장착량은 88GWh로 전년비 27% 증가. 배터리 제조사별로 보면 CATL의 장착량이 27GWh로 전년비 5% 증가하며 점유율 31%로 1위. BYD는 동 기간 +67% 증가한 19GWh를 기록해, 시장 점유율은 2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2위 유지.

한국 3사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2GWh로 전년비 44% 증가해 국내 3사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삼성SDI(2.4GWh)는 동 기간 -19%로 역성장세 지속. LGES는 VW향(비중 33%)과 GM향(비중 19%)이 각각 +44%, +83% 성장을 지속한 덕분. 반면, 삼성SDI는 북미 JV 가동한 Stellantis향이 +98% 성장에도 불구 유럽 고객인 BMW향(비중 40%, 판매 -16%)과 VW향(비중 15%, 판매 -37%)이 모두 부진한데 따름.

(*장착량 데이터는 승용차 기준, BEV, PHEV 판매량에다 제조사별 배터리 공급선을 감안해 추정된 것)

글로벌 배터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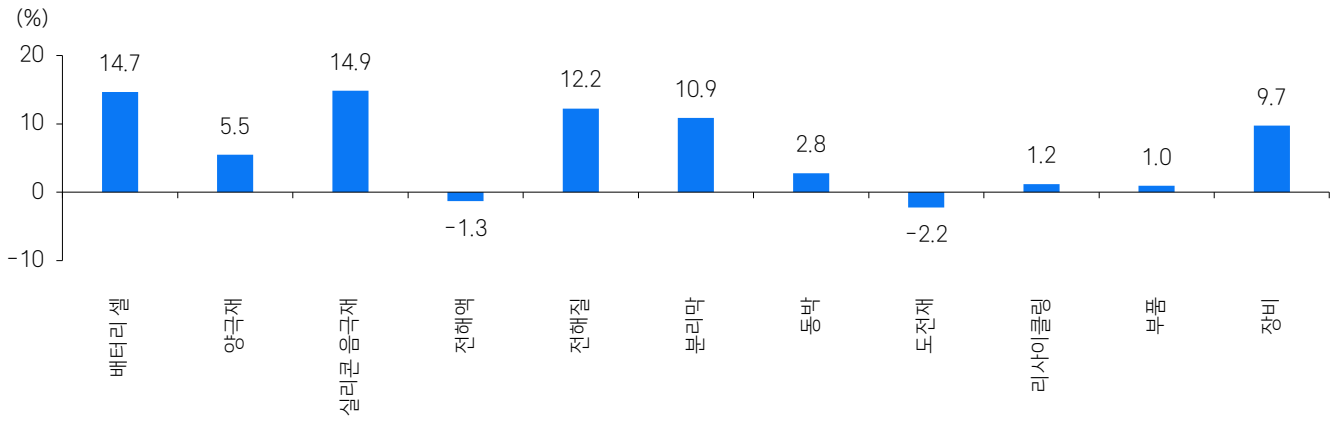
참고: 각국 밸류체인. 6월 30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6월 2차전지 주가 성과 및 산업 환경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한 6월: 6월은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한 상원 수정안이 발표되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등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투자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란간 휴전 협정 체결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와 및 한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으로 수급 개선이 이뤄지면서 상승 마감.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의 주가는 평균 6.7% 상승해 중국(+13%)보다 언더퍼폼했으나 셀 업체만 보면 한국(+14.7%)업체는 중국(+7.9%)보다 크게 아웃퍼폼. 이는 SK이노베이션(+39.6%)이 6월 30일 2차전지외 정유 부문, 가스 부문 등 실적 개선 기대감 부각으로 공매도 숏커버를 촉발하며 급등했기 때문.

부문별 선방한 서브섹터는 2차전지 보다 다른 이슈로 아웃퍼폼했던 6월: 6월은 5월과 달리 서브섹터 전반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2차전지 사업 관련 업황 개선 내용 보다 비2차전지 관련 이슈들이 컸음. 셀은 SK이노베이션이 상승을 다 설명한 셈이라면, 소재 부문에서 실리콘음극재(+14.9%)의 강세는 반도체 소재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컸던 한솔케미칼(+26%) 영향. 장비부문의 선전은 수익이나 자산대비 현저한 저평가 요인이 부각된 에스에프에이(+11%)도 있지만,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 원익그룹이 주목 받으면서 계열사에 속한 원익피앤이(+25%)도 급등한 덕분.

6월 한국 밸류체인 서브섹터별 주가 성과



참고: 6월 한 달간 수익률 평균
자료: QuantiWise

(5월 배터리 장착량 동향) 부익부 빈익빈 형태가 이어진 5월 배터리 장착량 성과: 5월 한국 배터리 3사의 장착량 성과를 보면 LGES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해 한국 3사중 5월에 유일하게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임. LGES는 VW(판매 비중 33%)향이 +44% 상승한데다, GM(비중 19%)향이 83% 늘어나[1]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 호조세를 이어감. 한편, 삼성SDI는 동기간 -19% 감소했는데 Stellantis(비중 18%)향이 북미 JV 물량 증가로 +98% 증가[2]했지만, 최대 고객사인 BMW(비중 40%)향 물량이 -16%로 부진했고 VW그룹(비중 15%)향도 -37%로 역성장이 지속된 탓.

[1] GM향은 북미 베스트 판매 모델인 90kWh급인 Equinox의 작년 하반기 출시 영향과 200kWh급인 Silverado 등도 구매 보조금에 기댄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
[2] Stellantis향 장착량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대당 배터리용량이 100kWh가 넘는 Dodge의 Charger BEV와 Jeep의 Wagoneer BEV가 새로 출시된데 따른 모델 믹스 효과가 컸음.

한편 중국 업체들은 내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지속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BYD 장착률은 전년 동월 대비 +67%를 기록해, CATL의 성장률(+5%)을 이번달에도 크게 앞서감. BYD는 지난달과 같이 캡티브 고객인 BYD(비중 79%)향이 +49% 성장한데다 전년에 공급이 없었던 Xiaomi와 Xiaopeng향 물량이 커졌기 때문. 반면, CATL은 VW향(비중 10%)이 동기간 +125%로 급증하고, Geely Auto(비중 13%)도 +18%로 호조였으나 테슬라향이 -45%로 급감한 탓.

글로벌 배터리 셀 6개사: 2025년 5월 고객 비중 및 장착량 비교

		고객사 1	고객사 2	고객사 3	기타	전체
LGES	고객사	VW Group	GM	Tesla Inc.		
	점유율(%)	33	19	19	29	100
	장착량(MWh)	3,878	2,210	2,170	3,411	11,669
	YoY(%)	*44*	*83*	*14*		*44*
삼성SDI	고객사	BMW Group	Stellantis	VW Group		
	점유율(%)	40	18	15	27	100
	장착량(MWh)	965	436	359	641	2,401
	YoY(%)	*-16*	*98*	*-37*		*-19*
SK온	고객사	Hyundai Motor	VW Group	Ford		
	점유율(%)	53	18	16	13	100
	장착량(MWh)	1,489	493	440	373	2,794
	YoY(%)	*-24*	*6*	*-31*		*-16*
CATL	고객사	Geely Auto Group	VW Group	Changan Automobile Group		
	점유율(%)	13	10	9	68	100
	장착량(MWh)	3,541	2,772	2,313	18,375	27,000
	YoY(%)	*18*	*125*	*102*		*5*
BYD	고객사	BYD	Xiaomi	Xiaopeng		
	점유율(%)	79	8	4	10	100
	장착량(MWh)	15,021	1,473	678	1,840	19,012
	YoY(%)	*49*	*264*	*n/a*		*67*
Panasonic	고객사	Tesla Inc.	Toyota Motor Corp.	Subaru Corp.		
	점유율(%)	79	17	3	2	100
	장착량(MWh)	3,330	730	108	72	4,241
	YoY(%)	*-13*	*1*	*-22*		*-10*

참고: 고객사는 장착량 기준 순
자료: EV Volumes

(6월 메탈 가격 동향) 리튬 가격 약세 지속: 리튬(탄산리튬) 가격은 6월 30일 현재 kg당 59.8위안(8.3달러)으로 전월 말(58.9위안)과 비교하면 1.5% 개선. 하지만 4월말 리튬 가격이 앞선 1년 반 동안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70위안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 지 두 달이 흘렀으나 60위안 회복에는 실패.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리튬 채굴 및 가공업체들이 대량의 재고를 쌓은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 리튬 수요 증가에도 불구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 한편, 니켈 가격은 kg당 15.1달러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 지속. 중국 스테인리스 수요 둔화와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 확대 등으로 한때 14.6~14.7달러까지 빠졌다가 6월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지역의 니켈 광산 채굴을 전격 취소하면서 소폭 반등한 것.

메탈 가격 변화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리튬	445	79	-82	-16	-1	-17
니켈	27	45	-46	-6	3	-4
코발트	119	-27	-44	-15	38	-2
망간	36	-11	-22	-1	-3	-1
알루미늄	42	-16	-1	10	-2	3
구리	25	-13	1	3	11	4
철	-28	-5	23	-28	2	-3

자료: KOMIS, 삼성증권

2차전지 산업 이슈와 7월 투자전략

이슈 1. (정책) 9월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수정된 상원 최종안 통과: 7월 1일(미국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OBBB 법안에 대해 미국 공화당 상원에서 통과됨. 상원 표결 전 수정된 입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 공제 시점이 기존 상원 재무위의 초안에 비해 더 앞당겨진 9월 30일로 정해짐. 이 경우 미국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법안 발효 시점과 상관없이 4분기의 전기차 판매 계획부터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입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미 4월에 발효된 상황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차종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진 상황[3]임.

한편, 2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배터리부품에 대한 AMPC 조기 종료 이슈는 상원안에서는 IRA 원안과 같이 유지됨. 또한 적격 요건 맞추기 위한 중국 공급망 배제 부분도 당초 하원안(발효 후 2년 내 전격 배제)에 비해 2026년부터 적격 부품 인정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바뀜. AMPC 수취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바뀌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AMPC가 미국 전기차 고객의 판매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국 상원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기 종료를 통해 결국 AMPC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즉,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AMPC 이슈 역시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에 따른 고객사들의 판매 계획 조정 가능성으로 당초의 예상보다 눈높이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이슈인 셈.

[3] 2차전지 하반기 전망: 리스크와 회복게임 (2025.6.19) 보고서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 관련 상원 입법 최종안

항목	공제 내용	하원안	상원 초안	상원 최종안	IRA 원안
친환경차 세액 공제	7,500달러	2026년말 종료*	발효 후 180일 이후 종료	2025년 9월 30일 종료	2032년
중고 친환경차 세액 공제	4,000달러	2025년말 종료	발효 후 90일 이후 종료	2025년 9월 30일 종료	2032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 공제	7,500달러/40,000달러**	2025년말 종료	발효 후 180일 이후 종료	2025년 9월 30일 종료	2032년

참고: *2010년~2025년 누적으로 20만대 이상 판매한 제조사 차량은 제외; **총중량 14,000파운드 이하는 7,500달러, 초과는 40,000달러
자료: 미국 재무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삼성증권 정리

미국 상원 입법 최종안: 배터리 부품에 대한 AMPC 적격 부품 인정 비율

Battery component	적격 부품 인정 비율
2026년	60%
2027년	65%
2028년	70%
2029년	80%
2029년 12월 31일 이후	85%

자료: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7월 9일 최종 확정 예정인 글로벌 상호 관세: 1일(미국 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4월 2일(미국 시간) 글로벌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가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고율 관세 선언과 유예 또는 하향 등을 반복 등을 경험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낮아 보임. 하지만 한국 2차전지 공급망 입장에서는 최종 상호관세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 충격의 정도를 따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2차전지 경쟁 구도하에서 대중국 관세가 한국 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미국 EV 또는 ESS 시장 경쟁에서 유리.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의 보편관세 10% 적용에서 25%로 올라가는 경우는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 배터리셀 제조사들의 원재료 구매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만약 4대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있어서 25%의 관세를 가정하면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해당 전기차의 가격이 5% 인상되는 효과[4]. 더욱이 4대 소재 중에서도 음극재의 경우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관세로 인해 실제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이슈와 별개로 전방 전기차 수요 위축에 따른 출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슈.

한국산 2차전지 소재 관세율 적용시 미국 전기차 가격 변화

	미국 내 셀 제조 시 수입 소재에 대한 관세 시나리오	
대한국 관세	10%	25%
셀 제조 가격 상승폭*	6%	16%
전기차 제조 가격 상승폭**	2%	5%

참고: *NCM8 셀에 대한 소재 가격에 대한 관세 감안 시 **팩:셀 = 1:0.75 비율 및 전기차 중 팩 cost 비중 40% 가정
자료: 삼성증권

[4] (2차전지) 시대 33 – 관세 정책과 2차전지(2025.4.10) 보고서

중국산 EV, ESS 배터리 관세율 현황

관세 유형	EV 배터리	ESS 배터리	
	2025년	2025년	2026년
기본 수입 관세	3.4%	3.4%	3.4%
Section 301 관세	25%	7.5%	25%
대중 수입 관세	20%	20%	20%
Section 232 관세 (2025년 5월 3일 발효)	25%	0%(비적용)	0%(비적용)
상호 관세 (2025년 4월 3일 발효)	0% (제외)	10%	10%
최종 관세	73.4%	40.9%	58.4%
자동차 가격 변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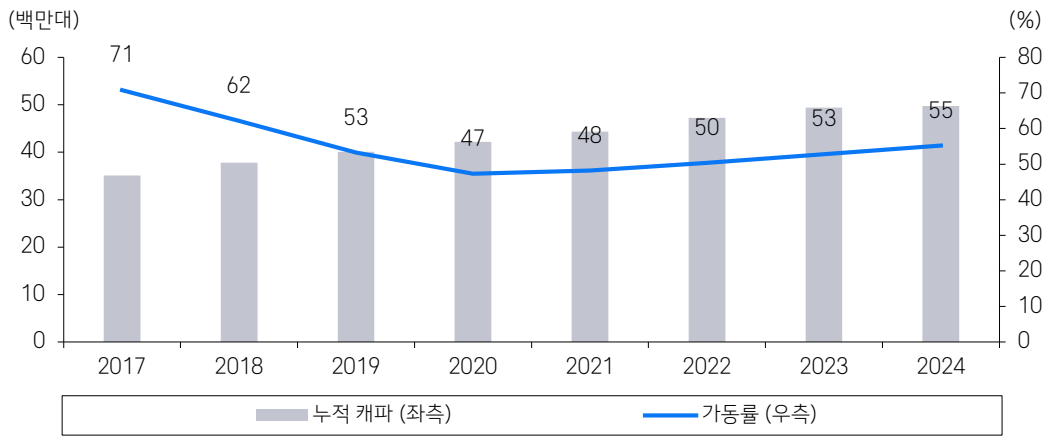
자료: BNEF, 삼성증권

이슈 2. (Downstream) BYD발 할인 경쟁과 공급망 리스크: 6월 한 달 동안 2차전지 산업 내 주목을 끌었던 이슈는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1위를 차지한 BYD의 공급과잉 문제 및 지나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부각 가능성이었음. 5월에 BYD는 22개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34%까지 가격 할인에 나서면서 중국 내 OEM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촉발함. 이어 6월 초에는 BYD의 중국 내 최대 딜러인 첸청 그룹이 파산 보도가 나오고 판매 경쟁으로 인해 주행거리가 전혀 없는 차량을 딜러가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제로 마일리지 차량 이슈가 불거졌던 것. 이에 중국 정부는 업계 대표들을 소집해 할인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과도한 가격 경쟁 상황은 수요 대비 중국 내 과잉 생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BNEF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평균 생산 가동률은 2024년 5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BYD나 장안, 체리 같은 업체는 내수 판매 호조와 수출 증가로 가동률이 80% 이상 상회하고 있고, 이 업체들이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결국 가동률이 낮은 Tier 2 업체들의 사업 악화 상황이 커질 수 있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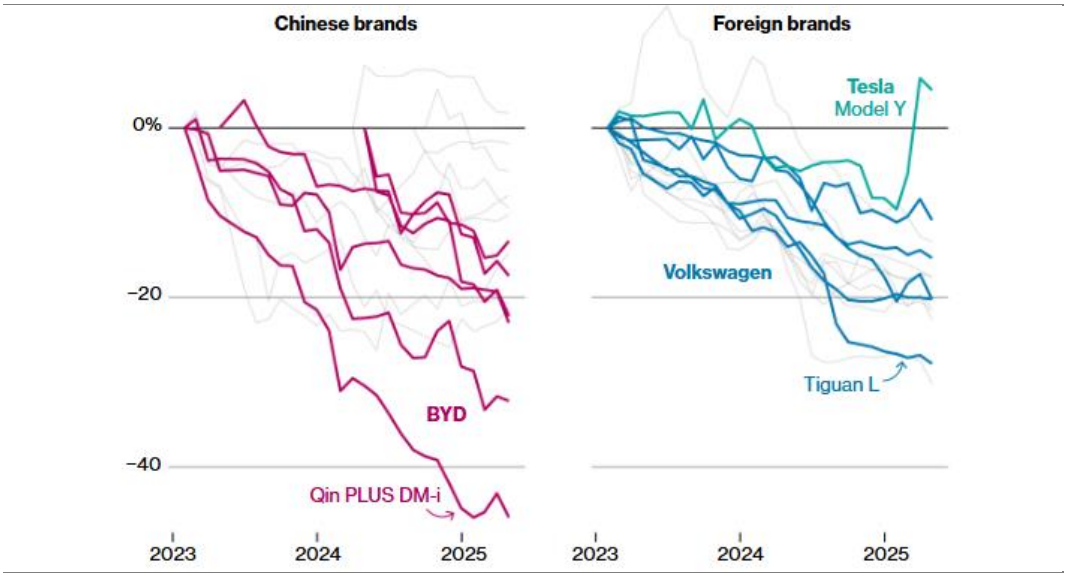
2차전지 산업으로 좁혀보더라도 2024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46%로 지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가동률 부진에 더해 배터리 역시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장 일부에서 제기하는 BYD의 위기설에 대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재고에 대한 이슈는 중국 전기차 공급망 전체에 공통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만약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할인을 통한 수요 자극이 멈추며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수요 감소와 함께 2차전지 생태계 전반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중국 자동차 제조사 평균 가동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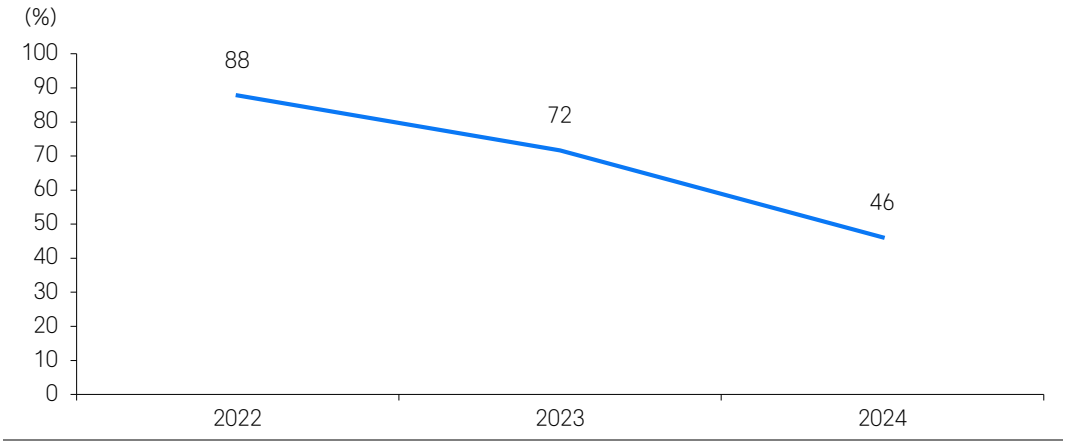
자료: BNEF

중국 전기차 내연기관 대비 할인율



자료: BNEF

중국 2차전지 가동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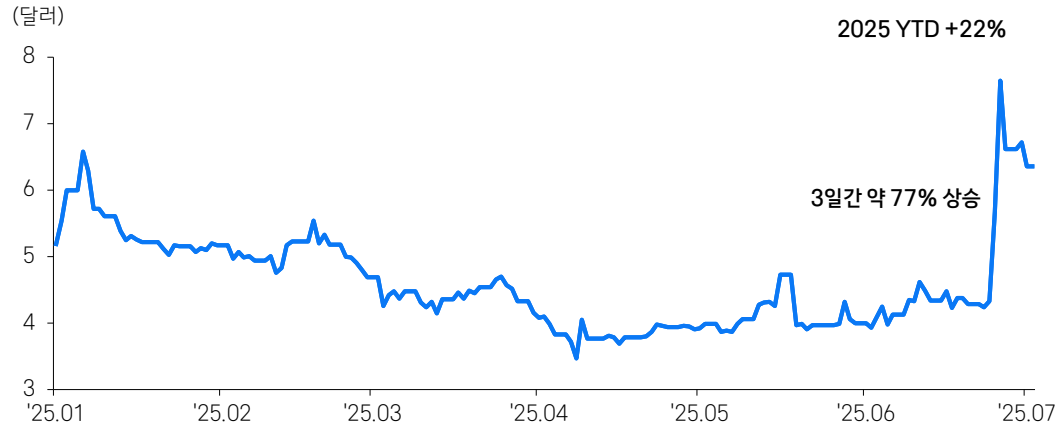
자료: BNEF

이슈 3. 퀀텀스케이프 주가 급등과 다시 꿈틀대는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6월 이후 2차전지 산업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우선, 미국의 전고체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는 지난달 25일(미국 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코브라' 분리막 공정이 기본 생산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2026년 전기차에 장착 가능한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32% 급등. 3일간 상승률은 77%로 2020년 12월 이후 3일 상승폭으로는 최고 수준을 기록. 시바 시바람 퀀텀스케이프 CEO는, 코브라 공정이 기존 공정에 비해 열처리 속도가 25배 향상되고 장비 공간을 줄임으로써 상업화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 이를 바탕으로 생산 속도, 효율성, 확장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대량의 B1 샘플 생산 기반을 마련한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상황.

산화물계 전고체 업체로 알려진 대만의 프롤로지움은 대만 내 2024년 생산을 시작한 GWh급 기가 공장에서 리튬 세라믹 배터리 생산량 증가 소식과 함께 프랑스 덩케르크 공장이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2026년 착공, 2028년 대량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 동사에 따르면 대량 생산 기술 최적화를 위해 4세대 무기 전해질(all inorganic electrolyte) 구조를 발전시켜 고체 배터리와 액체 배터리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점을 강조. 따라서 프롤로지움의 전고체 배터리는 순수 전고체 컨셉이 아닌 하이브리드 구조로 기술 개발과 양산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도 지난달 전기 세단 'Seal'에 전고체 배터리를 테스트 중이며 2027년부터 탑재를 시작할 것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가 있었음. BYD 측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격적인 BYD의 행보 때문인지 지켜보게 되는 뉴스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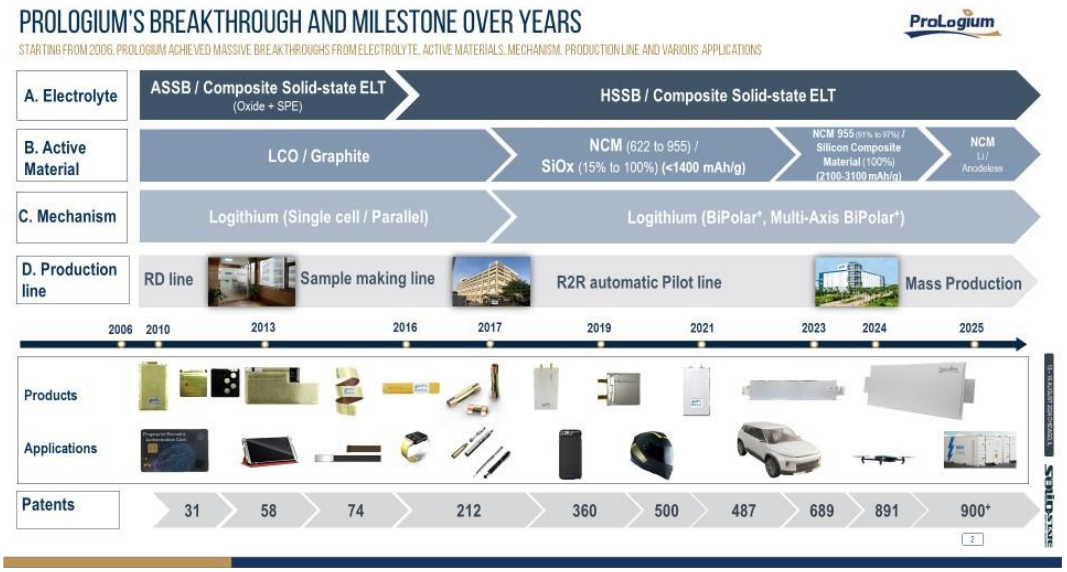
연이어 나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들 중에서 퀀텀스케이프의 주가 급등 이슈를 보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가능성에 대해 주식시장 내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지만, 공정 개선 또는 양산 가시화 정도에 따라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하반기 전고체 양산라인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SDI가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되면, B샘플 공급 가능성과 함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퀀텀스케이프 2025년 YTD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프롤로지움의 배터리 기술 혁신과 연혁



자료: Prologium

투자자들의 전고체 배터리 관심을 환기시킨 뉴스

기업	뉴스 시점	이슈
퀀텀스케이프	6월 25일	리튬 세라믹 분리막 공정 개선으로 2026년 전기차용 양산 목표 언급
BYD	6월 28일	전기차 'Seal'에 전고체 테스트 중으로, 2027년 상용화 가능성 보도. 회사는 부인.
프롤로지움	7월 1일	4세대 무기 전해질 구조로 양산 기술 최적화해 2028년 대량 생산 계획

자료: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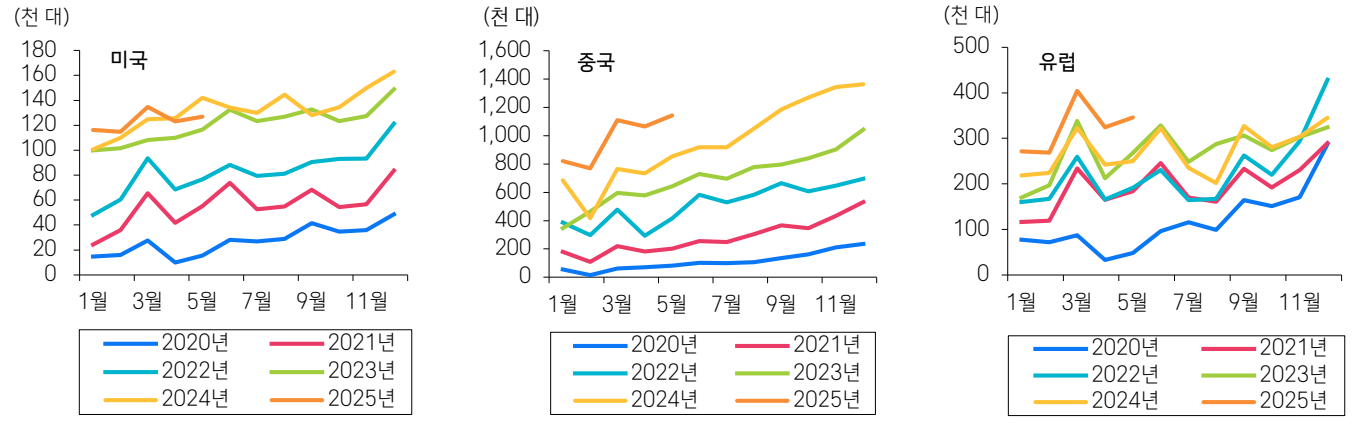
7월 2차전지 투자전략 –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하게 될 어닝 시즌의 투자전략: 6월이 실적 공백기에 펀더멘털 보다 스토리가 수급을 견인하며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면 7월은 다시 기업들의 성과를 따지는 시기. 또한 3분기 및 연간 업황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 변화를 확인하게 될텐데, 현재 유럽 및 미국의 판매 동향 및 점유율 변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기존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더구나 리튬 가격이 2개월째 탄산리튬 기준으로 60위안 아래에 머물다 보니 소재 공급망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우상향 조정 가능성 보다 우하향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7월은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하반기 수요 리스크에 덜 노출된 기업 위주의 투자전략이 유효해 보임. 7월의 투자 유망기업은 수요 상황과 무관하게 수주 기반의 매출이 이뤄지고 현금 가치가 높은데다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에스에프에이를 추천함.

글로벌 EV 출하량 추이

지역		2024년								2025년				
(천 대)	종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미주*	BEV	138	140	133	145	136	140	155	165	117	112	124	118	124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40	34	36	41	34	41	42	50	36	35	50	45	45
총계		**178**	**174**	**169**	**185**	**170**	**181**	**197**	**214**	**153**	**147**	**174**	**164**	**169**
유럽	BEV	172	233	158	144	238	191	211	242	187	188	275	214	226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78	89	77	58	89	89	92	103	84	81	129	110	120
총계		**250**	**322**	**235**	**202**	**327**	**280**	**303**	**345**	**271**	**269**	**404**	**325**	**346**
중국	BEV	523	520	486	595	692	715	796	787	454	467	711	667	676
	PHEV	330	399	432	454	494	555	547	577	366	303	399	397	468
총계		**853**	**919**	**918**	**1,049**	**1,186**	**1,270**	**1,343**	**1,363**	**820**	**770**	**1,110**	**1,064**	**1,144**
미국	BEV	112	111	106	116	106	108	122	132	93	91	99	92	96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30	23	24	28	22	27	28	31	23	24	36	31	31
총계		**142**	**134**	**130**	**145**	**128**	**135**	**150**	**163**	**116**	**115**	**135**	**123**	**127**
아시아**	BEV	579	583	544	653	749	780	873	857	513	538	801	739	767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339	409	443	464	506	567	560	589	379	318	415	411	481
총계		**918**	**992**	**987**	**1,117**	**1,254**	**1,347**	**1,434**	**1,447**	**892**	**857**	**1,217**	**1,150**	**1,248**
아프리카	BEV	9	11	8	9	11	6	7	10	12	7	11	9	10
	PHEV	2	3	2	2	3	2	2	3	5	4	5	4	5
총계		**11**	**14**	**11**	**11**	**14**	**9**	**9**	**13**	**17**	**11**	**16**	**13**	**16**
전 세계 판매량		**1,357**	**1,502**	**1,402**	**1,516**	**1,765**	**1,817**	**1,943**	**2,019**	**1,334**	**1,284**	**1,810**	**1,651**	**1,779**

참고: 승용차 기준, * 미국 포함 판매량, ** 중국 포함 판매량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전기차 판매량 추이



참고: 승용차 기준, BEV+PHEV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5월 글로벌 OEM 전기차 판매량 Top 10

Rank	제조사	2024년								2025년				
(천 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BYD	295	322	349	397	416	475	446	447	268	269	380	361	377
2	Geely Auto Group	69	76	69	87	104	124	136	128	128	107	130	135	146
3	VW Group	81	90	74	75	97	100	102	103	90	84	128	113	119
4	Tesla Inc.	147	193	122	150	192	121	173	202	92	94	150	81	112
5	GM	67	56	67	98	110	124	142	144	65	65	103	107	93
6	Changan Automobile Group	52	51	49	51	54	84	105	75	59	47	78	69	87
7	Chery Automobile	34	32	36	40	62	64	71	91	59	46	59	60	71
8	Hyundai Motor	48	48	48	47	47	45	48	42	39	44	59	51	52
9	BMW Group	49	54	51	40	49	51	57	63	50	51	62	51	51
10	Stellantis	48	48	38	34	44	40	36	33	35	38	54	48	46

참고: BEV+PHEV+FCEV 승용차 기준;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월간 배터리 장착량 Top 10

(MWh)	기업	2024년								2025년				
순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CATL	25,787	28,543	24,518	24,774	29,425	26,318	29,571	30,770	20,185	16,965	28,054	23,867	27,000
2	BYD	11,405	12,919	12,880	14,385	16,361	17,492	17,336	18,188	11,993	13,638	17,313	17,445	19,012
3	LG Energy Solution	8,083	10,014	7,324	8,890	11,788	9,950	12,430	14,015	8,552	8,619	13,347	10,213	11,669
4	CALB	2,909	2,914	3,107	3,249	3,322	3,819	4,162	4,565	2,790	2,415	3,932	4,606	5,227
5	Panasonic	4,738	5,217	4,230	4,489	5,032	5,559	5,622	5,626	4,657	5,868	4,021	4,029	4,241
6	SK On	3,328	3,208	3,104	2,973	2,679	2,720	3,081	3,470	2,609	2,718	3,451	2,692	2,794
7	Samsung SDI	2,958	3,089	2,601	2,117	2,289	2,320	2,503	2,816	1,887	2,115	2,909	2,449	2,401
8	Gotion	840	973	940	1,261	1,655	2,074	2,452	2,423	1,650	2,025	1,994	2,103	2,203
9	SVOLT	781	1,014	1,047	1,522	1,941	1,957	2,172	2,113	2,053	1,841	2,075	1,879	2,197
10	Sunwoda	1,250	1,427	1,474	1,840	2,150	2,301	2,193	2,227	995	757	1,824	1,962	1,804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배터리 셀 및 재료업체 Capacity

(GWh, 천 톤)	기업	2022	2023	2024	2025E	2026E
셀	삼성SDI	87	101	112	152	206
	LG에너지솔루션	200	280	335	483	605
	SK이노베이션	88	88	118	230	282
	CATL*	388	525	685	755	901
	Panasonic	46	54	64	94	94
양극재	LG화학	90	120	140	150	170
	에코프로비엠	125	190	226	280	379
	엘앤에프	100	160	210	210	260
	포스코퓨처엠	40	155	185	315	315
	코스모신소재	20	20	30	60	90
음극재	포스코퓨처엠	82	82	92	132	132
동박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0	60	70	70	80
	솔루스 첨단소재	15	15	38	58	63
	SKC	52	96	96	121	121

참고: * JV 포함 Capa, 셀업체 Capa는 중대형(EV+ESS용), GWh 기준, 재료업체 Capa는 천 톤 기준; 자료: 각 사 IR,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추정, BNEF, CITIC

글로벌 2차전지 밸류체인 밸류에이션

국가	밸류체인	기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 수익률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영업이익률 (%)		EPS 성장률 (%)	
				1개월	6개월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한국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70,785	6.3	-15.0	317.5	52.0	3.3	3.1	17.6	11.9	1.5	5.9	6.8	12.0	nm	510.9
		삼성SDI*	14,425	3.6	-26.0	57.5	11.5	0.7	0.6	11.7	7.3	1.3	5.4	-0.4	6.8	-64.5	401.1
		SK이노베이션*	17,777	34.2	-1.1	n/a	25.0	0.7	0.7	14.7	10.4	-1.7	2.7	1.3	3.2	nm	nm
	양극재	LG화학*	16,942	22.9	-5.3	42.8	9.9	0.5	0.5	7.4	5.5	1.4	4.8	3.8	7.4	nm	331.5
		엘앤에프*	1,845	-5.0	-37.7	n/a	59.5	3.2	3.0	n/a	19.1	-23.6	6.0	-6.9	3.1	nm	nm
		에코프로비엠*	10,093	16.0	-8.7	n/a	155.8	6.1	5.8	56.7	32.8	-0.4	3.8	2.0	3.9	nm	nm
		코스모신소재	1,135	5.1	-37.5	84.1	39.0	2.2	2.1	34.1	19.8	2.7	5.5	3.2	4.9	-23.6	115.5
	양/음극재	포스코퓨처엠*	9,838	12.5	-10.4	321.7	108.8	3.2	3.1	35.4	26.3	1.3	3.1	1.8	3.5	nm	195.8
	실리콘음극재	대주전자재료	1,088	-4.1	-8.1	42.0	27.1	4.0	3.3	24.5	17.2	10.7	14.2	13.8	17.1	-32.5	55.2
		한솔케미칼	1,865	24.4	60.5	12.9	11.3	1.7	1.5	9.2	7.8	13.8	14.0	18.9	20.2	15.9	14.9
		동진쎄미캠	1,638	14.0	43.5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전해액	솔브레인	1,416	12.9	6.7	10.0	8.4	1.2	1.1	4.8	3.9	13.0	13.6	18.5	20.2	18.7	18.9
		동화기업	438	3.1	-0.6	21.6	13.3	0.5	0.4	12.9	9.1	2.2	3.5	4.1	5.9	nm	62.8
		엔켐	1,189	-15.9	-59.4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전해질	후성	520	15.6	-4.7	n/a	57.7	1.7	1.6	19.4	13.3	-1.6	2.8	0.8	3.8	nm	nm
		천보*	401	12.0	6.6	n/a	n/a	1.1	1.1	26.2	18.5	-0.9	1.4	3.3	1.9	nm	nm
	분리막	SKIET*	1,989	32.9	18.2	n/a	n/a	0.9	0.9	264.0	18.2	-5.6	-0.2	-43.8	0.8	nm	nm
		더블유씨피	245	-6.5	-37.6	n/a	n/a	0.3	0.3	n/a	13.1	-8.3	-3.0	-35.6	4.4	nm	nm
	일렉포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181	3.2	-6.4	n/a	57.9	0.8	0.8	48.2	12.0	-2.1	1.4	-7.5	2.6	nm	nm
		솔루스첨단소재	572	-16.3	-6.7	n/a	260.9	1.0	1.0	35.8	15.3	-3.6	-0.1	-5.3	3.3	nm	nm
		SKC*	4,025	20.2	-9.1	n/a	n/a	3.9	3.8	108.5	27.8	-21.3	-8.2	-7.0	2.9	nm	nm
	도전재	나노신소재	614	2.7	-18.1	119.5	41.5	2.3	2.1	19.3	13.3	2.1	5.6	8.4	14.2	nm	187.7
		제이오	269	-5.9	-41.7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리사이클	성일하이텍	415	5.4	-9.6	n/a	15.0	2.3	2.1	n/a	17.6	-15.7	13.7	-17.1	6.1	nm	nm
		새빗켐	89	1.2	-5.7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부품	상아프론테크	297	13.3	-3.8	n/a	n/a	n/a	n/a	n/a	n/a	n/a	n/a	3.5	6.3	n/a	n/a
		신흥에스이씨*	150	-3.6	-25.0	44.0	10.8	0.5	0.5	7.6	6.3	0.9	4.1	2.4	5.0	-84.1	307.3
		상신이디피	107	-4.4	3.1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장비	에스에프에이*	835	10.5	21.2	8.6	6.4	0.7	0.6	5.0	3.7	9.7	11.6	9.1	10.7	nm	34.5
		하나기술	185	-0.4	16.5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피엔티	743	-1.1	-20.7	5.7	n/a	n/a	n/a	n/a	n/a	n/a	n/a	14.6	n/a	-12.2	n/a
		원익피앤이	161	25.4	40.5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기타	에코프로	6,198	8.4	-23.4	n/a	53.9	4.1	3.8	84.3	25.8	n/a	n/a	-0.4	3.8	nm	nm
		포스코홀딩스*	23,309	18.0	11.2	16.0	12.5	0.4	0.4	6.1	5.7	2.6	3.2	3.7	4.4	24.2	28.4
중국	배터리 셀	CATL	218,216	-0.3	-2.3	17.1	14.2	3.7	3.2	9.7	7.7	23.0	23.8	17.9	18.1	23.5	20.8
		BYD	191,559	-8.4	42.2	19.2	14.8	2.2	2.0	6.8	5.4	24.5	24.1	6.4	7.3	25.7	29.5
		Gotion High Tech	10,648	26.7	56.1	39.4	27.9	2.0	1.9	16.7	14.0	5.1	6.8	4.4	5.1	16.2	41.4
		EVE Energy	17,465	0.0	2.8	17.3	13.1	2.2	1.9	11.9	9.2	12.8	15.1	9.4	10.1	30.8	32.0
	리튬	Tianqi Lithium	9,923	10.7	2.6	38.8	25.0	1.2	1.2	10.9	7.5	3.0	4.6	39.8	45.0	nm	54.1
		Jiangxi Ganfeng	12,224	14.6	4.5	89.7	33.8	1.5	1.5	29.6	19.3	1.6	4.5	5.6	11.4	nm	165.0
	코발트	Nanjing Hanrui	2,104	12.5	13.8	31.8	30.2	1.9	1.8	n/a	n/a	6.0	6.0	7.2	5.9	76.9	5.3
		Zhejiang Huayou	12,255	13.3	36.9	14.2	12.2	1.6	1.5	8.6	7.5	11.6	11.9	9.6	10.0	6.7	16.4
		China Molybdenum	34,460	19.5	27.6	12.9	11.6	2.3	2.0	5.9	5.2	18.7	17.8	13.9	14.9	6.2	11.0
	양/음극재	Shenzhen Dynanonic	1,726	17.3	-1.0	142.4	33.5	1.6	1.5	33.0	12.9	-4.2	3.4	-2.2	3.3	nm	322.9
		Beijing Easpring	4,124	13.5	14.8	31.2	24.4	1.6	1.5	14.6	11.4	5.1	6.3	7.2	7.5	47.5	28.2
		Ningbo Shanshan	3,947	16.6	27.8	28.5	15.5	0.9	0.9	12.4	9.4	3.3	5.7	6.4	9.5	nm	83.1
	전해액	Guangzhou Tinci	6,605	7.0	0.1	28.6	21.2	2.5	2.4	15.2	11.9	8.0	10.7	8.7	10.2	154.5	34.2
		Shenzhen Capchem	4,780	10.1	-2.8	20.0	16.0	2.4	2.2	12.8	10.5	11.6	13.4	14.8	15.1	33.5	25.5
	분리막	CangzhouMingzhu Plastic	1,178	9.4	9.1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Shenzhen Senior	3,133	24.1	36.8	31.2	25.7	1.6	1.6	16.5	12.0	4.5	5.8	12.9	14.4	45.4	21.5

국가	밸류체인	기업	시가총액	주가 수익률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영업이익률 (%)		EPS 성장률 (%)	
			(십억원)	1개월	6개월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일본	배터리 셀	Panasonic	35,552	-5.6	-6.8	11.2	10.6	0.7	0.7	5.3	5.2	6.9	7.0	4.7	5.2	-21.7	-0.6
		GS Yuasa	2,545	3.6	1.0	9.7	8.4	0.8	0.7	5.0	4.7	8.1	9.3	8.1	8.6	-18.8	9.4
	양극재	Sumitomo Metal Mining	9,880	8.3	-0.6	23.2	13.5	0.6	0.5	17.3	13.2	2.5	4.1	2.2	4.2	-23.4	67.8
		Tanaka Chemical	127	1.2	-20.9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음극재	Tokai Carbon	2,135	0.0	9.4	17.8	10.7	0.7	0.7	5.9	4.4	4.3	7.4	7.6	10.0	nm	66.1
		Nippon Carbon	451	-5.5	-8.4	10.9	10.6	n/a	n/a	n/a	n/a	n/a	n/a	16.9	17.0	7.6	2.5
		Showa Denko	5,659	6.2	-19.4	17.6	8.5	0.9	0.8	8.0	6.1	4.9	10.5	4.4	7.5	-52.7	106.5
	전해액	Stella Chemifa	483	6.5	-11.0	13.5	13.7	n/a	1.0	n/a	n/a	7.7	7.6	12.5	12.3	101.0	-4.4
	분리막	Sumitomo Chemical	5,527	3.2	1.0	17.8	14.5	0.6	0.6	6.1	7.0	2.9	4.5	6.8	4.6	nm	19.7
		Ashai Kasei	13,432	2.3	-4.9	12.3	10.9	0.8	0.7	6.2	5.8	6.2	6.8	6.7	7.0	194.1	5.5
		W-Scope	123	-17.5	-15.5	n/a	n/a	0.2	n/a	2.2	n/a	-0.1	n/a	11.1	n/a	nm	nm
		Toray Industries	15,210	-0.4	-1.6	17.1	15.4	0.9	0.8	8.9	8.1	5.1	5.7	5.3	5.7	355.6	6.2
		Nippon Kodoshi	173	-4.0	-13.9	10.1	n/a	0.8	n/a	n/a	n/a	7.6	n/a	15.6	n/a	29.1	n/a
	일렉포일	Furukawa	4,816	6.3	7.7	17.7	14.3	1.5	1.4	9.8	8.5	8.8	10.3	3.6	4.4	386.8	15.3
미국	전기차	Tesla	1,381,383	-7.9	-16.8	169.6	113.4	13.2	11.8	75.0	55.8	7.8	10.0	6.1	8.9	-16.9	49.6
	리튬	Albemarle	10,869	23.4	-20.2	n/a	101.5	0.8	0.8	13.9	11.0	-2.3	1.0	0.7	3.6	nm	nm
		SQM	14,042	24.7	3.9	16.9	11.3	1.9	1.8	9.0	7.0	11.4	15.8	24.2	28.4	n/a	50.3
		FMC	7,544	11.4	-8.8	13.0	11.2	1.2	1.2	9.8	8.7	9.1	10.5	17.1	18.0	24.0	16.8
기타	양극재	Umicore S.A	5,636	47.4	41.4	13.3	12.6	1.7	1.6	7.1	7.0	11.7	11.7	13.5	9.8	nm	5.5

참고: 7월 2일 종가 기준, *커버리지 종목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7월 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7월 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